

농두지

2021 | 여름 | 44호

녹두칼럼

임한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기념재단 포커스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주요 뉴스

유족인터뷰

김용선
참여자 김수병의 증손자

지역대담

김봉기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장

지역단체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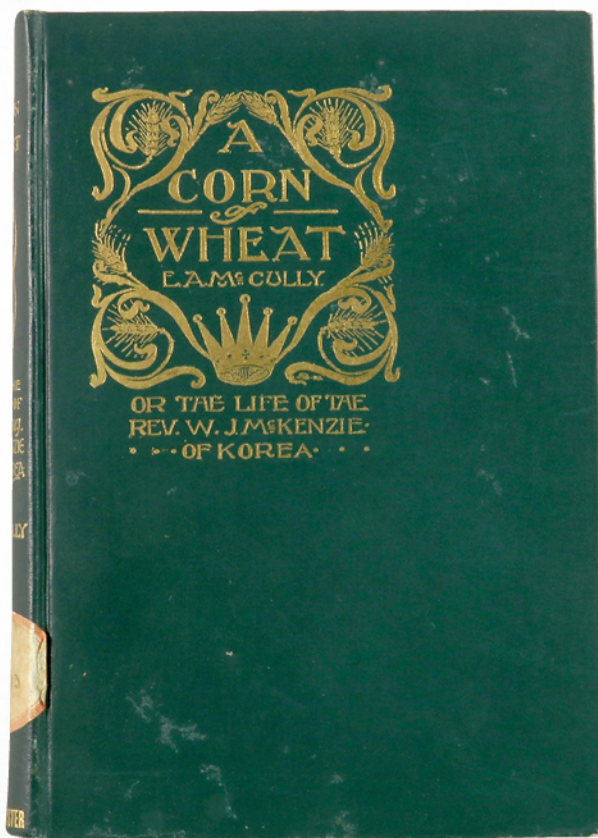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A CORN OF WHEAT

(한 알의 밀, 매켄지 목사의 조선에서의 삶)



A CORN OF WHEAT(한 알의 밀, 매켄지 목사의 조선에서의 삶) 서적 | 1903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A CORN OF WHEAT』은 캐나다 출신 선교사 윌리엄 존 매켄지(William J. McKenzie, 1861~1895)의 일생을 약혼녀인 엘리자베스 맥컬리(Elijabeth A. McCully)가 엮어서 발간한 책으로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제11장은 '동학(The Tong Haks)'으로, 약 36쪽의 분량을 할애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발생과 전개과정 및 황해도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매켄지 선교사는 1894년 2월 조선(황해도)에 들어와 소래교회 초대 목사로 활동하였다. 이 책은 윌리엄 존 매켄지가 황해도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거나 직접 대화를 나눈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목차

- 04 **녹두칼럼**
임헌영 / 민족문제연구소장
- 08 **기념재단 포커스**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 15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敍勳) 토론회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등록 「전봉준 생가 터」
제14회 녹두대상 선정
제11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 선정
'사단법인 전봉준' 창립총회 열려
정읍시립국악단 기획공연 소리극 '갑오년 만석씨'
동학농민혁명 127주년 기념 '특집방송'
- 22 **참여자 유족인터뷰**
김용선 / 참여자 김수병의 증손자
- 31 **지역대담**
김봉기 /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장



- 41 **교육·체험**
녹두꽃, 다시 피다
- 46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 50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바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표지 설명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개최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포스터
사발통문 이미지를 활용하여 동학농민군의 함성과 울림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녹두 제자(題字): 효봉 여태명

종로 네거리의 녹두장군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한국에서 근대적인 국가폭력의 첫 예인 동학농민전쟁 때의 집단학살 방법은 (1)처형 대상자의 손발을 묶어 큰 구덩이에다 생매장하기, (2)손발을 묶어 산 채로 바다나 강, 우물 등에 수장하기, (3)갑오개혁 때 금지한 효수(梟首)형, (4)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교형(絞刑)과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장형(杖刑), (5)두꺼운 종이를 물에 적서 입과 코를 틀어막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기 등등(이이화,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2』(교유서가, 2020, 253-254쪽)이었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집단학살도 있었다.

그 하나가 “정수리에 관술을 박아 불을 붙여 관술이 골속으로 타들어가게 해서 죽이기”(위와 같은 책)였다. 내가 이이화 선생에게 직접 들어 기억하기로는 끝을 뽕족하게 다듬은 관술을 정수리에다 박아 넣고는 불을 붙이면 뇌 속으로 타들어가다가 두개골이 펑 소리를 내면서 으깨져 죽게 된다는 이치였다. 산속으로 끌고 가서 이런 처형을 했는데, 마을 아낙들은 펑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죽은 사람을 헤아렸다고 들었다. 나중에 그 출처를 물었으나 이미 연로한 이 선생도 확인해주지 못했는데,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2』에서는 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예도 있다. 정읍 출신으로 농민전쟁에 가담해 싸우다가 간신히 피신해 화전민으로 전전궁궁하던 끝에 보성군 울어에 정착한 한장수 노인은 토벌 일본군의 잔혹상을 이렇게 전해준다.

“근디, 일본놈덜언 우리 동학군허고 무신 철천지원수가 졌다고 그리 악독하고 무작시럽게 했는지 몰라.(...) 그놈덜언 동학군얼 생포하면 총에 달린 칼로 갈가리 찢어죽이고, 그 폴다리고 창새기털 나뭇가지에 빨래 널디기 널었어. 그라고 총 맞아 죽은 시체도 목덜 다 찢라가뿔어 장사도 못 지내게 매글어뿌러터. 일본놈덜언 그 심웁는 두 여자덜 몽당이로 때래 죽이고고 모질래서 애 뺨 메누리 배럴 갈라 애덜 꺼내 사립에 다 꺼끌로 달아맸드란 말이시.”(조정래 『태백산맥 4』, 해냄, 등단 50주년 개정판, 2020, 69-70쪽) 한장수 노인의 일본군 잔혹담은 더 이어진다. “.... 일본놈덜언 처녀덜 각단지게 돌아감서 범하고넌 그것도 모지래 독사럴 잡아다가 처녀 거그다가 틀어넣어 죽인 것이여.”(위와 같은 책, 71쪽)

내가 본 소설 중 이에 필적할만한 엽기적인 처형법은 중국과 옛 유고슬라비아에도 있었다. 노벨상 수상작가 모옌(莫言)은 소설 『탄상싱(檀香刑, Sandalwood Death)』에서 세계문학사상 가장 엽기적인 처형방법을 치밀하게 소개해준다. 시대적인 배경은 중국대륙이 유럽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식당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독일이 조차지로 차지했던 자오저우만(胶州湾)이 무대였다. 유랑극단장(쑤빙, 孙丙)은 자기 아내를 희롱한 독일인을 죽이고 피신해버렸으나 독일군들은 그의 아내, 두 아들, 마을 주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쑤빙은 의화단에 가입해 반외세전투에 나섰으나 중국 관군이 독일군과 연합하여 의화단을 탄압하자 그 포로로 잡혔다. 쑤빙에게 내려진 판결은 그냥 사형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것이었다. 참기름에 잘 삶은 미끈한 박달나무를 끝이 뾰족하도록 다듬어 향문예다 쭈서 넣어 내장을 안 상하게 목 뒤쪽(혹은 입)으로 관통시키게 빼내서는 십자가에 고착시켜 매달아 죽을 때까지 거리에 세워두도록 하는 탄상싱이었다. 대개 5일간 숨이 안 떨어지고 신음하다가 죽게 된다는데, 사형수에게 더 긴 고통을 주려고 인삼탕을 먹여 오래도록 연명시켰다는 것이다. 이토록 잔혹하게 죽이게 만든 배후 조종세력으로 이 소설은 독일인임을 암시한다.

이런 고도의 살인기술은 아무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베이징에서 40여 년간의 망나니 경력으로 황제의 포상도 받은 자오자(趙甲)야말로 실수 없이 탄상싱을 집행할만한 위인이었다. 자오자의 아들은 백정이었고, 며느리는 쑤빙의 딸이었다. 그러니 사돈이 사돈을 죽이도록 한 것이다.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있었던 자오자는 사돈이 혁명가이기에 예우하느라 장엄한 형벌 집행으로 후대에 전해지도록 기획했지만 그 지역 현령이 홀연히 민족의식이 살아나 쑤빙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찢러 죽여 버렸고, 며느리는 자기 생부를 죽이려는 시아버지를 찢러 죽였다.

중국에는 이것 말고도 능지처참(陵遲處斬) 처형법도 있었다. 형 집행리가 사형수의 뒷방울만 땃힐 정도로 살결을 얇게 저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부를 저미기를 하루 종일 5백회에 이르면 죽는다고 했다. 시신은 999조각으로 베어낸다는 이 끔찍 잔혹한 인간들!

역시 노벨상 수상작가인 유고의 이보 안드리치(Ivo Andrić)는 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The Bridge on the Drina)』에서 탄상싱과 똑 같은 처형법을 소개한다. 다만 박달나무 막대 대신 참나무에다 끝부분에는

쇠로 뽀족하게 창을 만들며, 참기름이 아닌 돼지기름을 칠한 게 다르다. 그걸 항문에 박아 넣어 천천히 쳐 올릴 때 간, 비장, 횡경막, 폐, 심장을 다치지 않게 스쳐 어깨를 뚫고 솟아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서도 더 오래 살아남아야 사형집행인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도 달았다.

형벌이 잔혹하다는 것은 그 ‘범죄’가 엄중하다는 뜻인데, 그게 침략자의 시선으로는 범죄지만 고통을 당하는 측에서 보면 민족해방투쟁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니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가장 나쁜 죄질’이고, 피침략 민족의 시선으로는 가장 고귀한 민족해방 투쟁인 것이다.

일본은 동학 참가자들을 철저히 소탕했는데, 그 이유는 미래의 조선 독립군의 싹을 뿌리 채 뽑으려는 침략의 흥계 때문이었다. 박완서가 “매국노(동학군 탄압 세력)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기업인을 낳고, 악덕기업인은 현이를 낳고..... 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도배장이는 남상이를 낳고”(소설 『오만과 몽상』)라고 했듯이 투철한 무장투쟁 독립사상의 큰 뿌리의 하나가 동학농민전쟁이 아니던가. 그걸 간파한 일본이라 동학교도를 얼마나 철천지원수로 여겼겠는가.

촛불혁명의 시원인 햇불혁명을 창출한 독두장군은 반제국주의 국민군 총사령관에 다름 아니다. 그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서부극이나 사무라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격하시키려는 썩은 역사교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되었던가. 농민전쟁 참가자들의 규율은 바로 촛불혁명 참가자들의 질서 정연함의 비조가 될 만하다.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관군은 뱀을 보듯이 피하면서 동학당에게는 스승을 만난 듯이 다가갔을까. 장군은 반제 민중혁명 사상을 그 당시의 농민들이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고자 동학 교리에 의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에 침략 의도를 가졌던 모든 외세(제국주의)로 일본과 서구 열강을 염두에 두었다. 그가 보기에는 다수의 조정 대신들이란 “망령되고 구차하게 자기의 안전에만 빠져서 위로는 군부를 협박하고 아래로는 인민을 속여 일본 군대와 손을 잡아 삼남의 인민들에게 원한을 불러오고 임금의 군사를 움직여 선왕의 힘없는 백성을 해치려 하니 진실로 무슨 의도이며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6)에 지나지 않았다. 독두장군은 일본이 조선인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국력을 쇠잔시킨 뒤에 국권을 찬탈할 의도로 보았을 것이다.

조정래는 『태백산맥』 4권에서 일본군들이 동학군뿐 아니라 민간인과 아녀자까지 얼마나 잔혹하게 탄압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죽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아름답고 눈물겨운 전설을 3권에서 펼쳐주고 있다. 조정래에 따르면 우리 민족사에서 근대 반제국주의 투쟁의 연원인 동학농민전쟁은 이후 의병을 거쳐 반제 항일무장투쟁-8.15이후의 남북통일민족자주 정권수립 투쟁-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 주장-민주화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것이다. 박경리의 『토지』나 북한의 리기영의 『두만강』 등 민족사를 다룬 대하소설들 역시 다 이런 흐름에서 일치고 있다.

세계사에서 독립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이란 ‘민족해방운동’과 일치시키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민족해방운동이란 세계사에서 제국주의의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침탈당하기 시작한 이후 약소국가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총칭하는 술어에 다름 아니다.

홉스봄이 『제국의 시대-1875-1914』(원제 ‘The Age of Emire-1875-1914’, 한길사, 1998)라고 규정한 이 기간에 일어났던 모든 민족해방투쟁을 그 나라의 독립운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이다. 물론 그 시기 설정은 나라와 민족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으나 세계사에서 제국주의 세력들이 남

의 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한 이후의 모든 반제 투쟁이 '독립운동'인 점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 민족의 주체적인 국권을 유지하는 걸 꺾방당하는 일체의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이 '독립유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성립할 수 있다. 항일투쟁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라 일체의 제국주의적인 세력에 대한 투쟁이 다 독립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진정한 '독립운동가 이념 지향'이란 그 첫 조건이 '반제투쟁 정신'일 것이다. 일본만을 향한 투지가 아니라 한반도의 자주권을 넘보는 모든 제국주의 세력 일체에 대한 투쟁정신이 '독립운동의 기본'일 것이다.

그런데 분단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보편성을 외면한 채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투사들을 제외하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이걸 세계사적인 '민족해방투쟁사의 원칙'을 도외시한 것이다. 일제 침탈은 부인하나 미국이나 다른 서양 세력의 침탈은 묵인 내지 용인한다는 따위의 정신은 '독립운동'의 기본을 벗어난 반민족행위에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계열이나 동학농민전쟁 계열의 투사들을 제외시킨 채 분파적인 '독립유공자'를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독립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남북 분단시대를 극복하려면 우리부터 먼저 뚜렷하고 명분 있는 '독립운동 정신'에 입각한 '독립운동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녹두장군이 오늘에 다시 등장한다면 오늘의 독립유공자들에게 뭐라 할까?

그의 정신은 바로 오늘의 우리 남북 평화통일과 민주정치의 정착화를 위한 적폐청산 시기에 너무나 절박하다. 이 가치 혼란의 시대에 녹두장군을 자주 만나고 싶다. 녹두장군 옆에서 연인과는 사랑을 맹세하고 동지와는 투쟁을 다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서울이 든든해질까.

이이화 선생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녹두장군은 특정지역에서만 아닌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 네거리에 서도 만날 수 있다. 그 동상에다 한국 최초의 반제국주의 투사의 월계관을 달아주고 싶다. 동학농민전쟁과 사회주의자들에게도 독립유공자라는 위패를 내릴 때 우리의 역사는 새로운 막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임현영(任軒永) | 1941년 경북 의성 출생. 중앙대 국문과 대학원 졸업, 동 대학 국문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소설, 정치를 통째로』, 『임현영의 유럽문학기행』, 『불확실시대의 문학』,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국현대문학사상사』, 『변혁운동과 문학』, 『문학과 이데올로기』, 『분단시대의 문학』, 『문학의 시대는 갔는가』, 『창조와 변혁』, 『우리 시대의 소설 읽기』, 『우리 시대의 시 읽기』 외 20여 권이 있다.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 서울 경복궁 내 흥례문 광장에서 제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이 주관한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정·관계 인사, 천도교와 전국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등 99명이 참석하여 구국애민 정신의 표상인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인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임금을 볼모로 잡은 채 친일 내각수립, 청일전쟁 등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국권을 유린한 일제를 몰아내고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는 물론이고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등 전국 각지에서 척왜! 반일의병의 기치를 들고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근대적인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선혈을 뿌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127년이 지난 올해 정부 주최로 경복궁 내 흥례문 광장에서 기념식이 펼쳐지게 된 것은 경복궁을 무단 점령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만방에 표방한 것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기념사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의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국민의례 | 내빈의 국기에 대한 경례

제127주년 기념식은 개식선언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송영례, 김용선, 문영식, 함영옥)이 무대에 올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는 국민의례로 시작되었다. 정부를 대표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념사 낭독에 이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기념배지를 달아주는 명예회복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밖에도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경과보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는 주제영상 상영, 문화공연(새야 새야 파랑새야) 등이 펼쳐졌다.



■경과보고 |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내빈석 | (우로부터 좌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도종환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명예회복식

(좌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 :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명예회복식
좌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 :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기념공연 | 새야 새야 파랑새야
(좌 : 가수 안예은, 우 : 대금 연주자 한충은)

동학농민혁명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뜻깊은 오늘, 먼저 감사의 마음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오신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영채 회장님, 천도교 송범두 교령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형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관 단체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뜻을 같이해 주신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김두관, 윤준병 의원님, 송하진 전북지사님, 참석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여러분께 존경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입니다. 평범한 농민들이 모여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던 1894년 5월 11일, 그 날은 안으로는 봉건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밖으로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결연히 일어섰던 동학 농민 선열들의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던 날입니다. 127년 전, 동학농민군은 경복궁을 무단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내고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장을 향해 진군해오다 공주 우금치에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최종목 적지였던 경복궁에 끝내 다다르지 못했지만 그 미완의 여정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백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우리는 이곳 경복궁에 모였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외치던 선열들의 뜨거운 신념도 여전히 우리가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자주독립 정신은 푸르른 서슬이 되어 3·1운동과 항일무장 독립투쟁으로 이어졌으며, 부패한 권력을 백성의 힘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그 결기는 4·19혁명으로, 6·10민주항쟁으로, 5·18민주화운

동으로, 2016년에는 촛불 시민혁명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에 담긴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애민정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반도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복에 한정된 국지적 사건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2004년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올바른 이름을 찾은 이래, 정부는 지자체·민간과 협력하여 참여자 발굴과 유족의 명예회복, 학술연구 등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686명의 참여자를 찾았고, 11,797명의 유족을 등록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전북 정읍의 황토현전적지에 조성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곳은 동학의 인본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관련 유적지와 기념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전수조사를 마친 후 연차적인 유적지 정비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민주주의의 근본 철학입니다.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인본주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쉽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절대 쉽지 않겠지만, 더 나은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전, 하늘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절망은 깊고도 깊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이 눈앞에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함성'이 하늘을 품으면 '세상을 바꾸는 울림'은 반드시 널리 퍼질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빛이 되어주며 함께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2021. 05. 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敍勳)을 위한 국회 학술토론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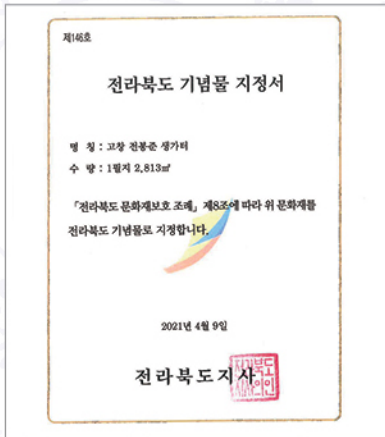
지난 5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우원식 의원·성일종 의원·강민정 의원·민형배 의원·이성만 의원·사단법인 바로선누리 공동주최, 국가보훈처·광복회 후원으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연구 현황과 과제」(조성운 : 역사와교육학회 회장), 제2주제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방안」(박용규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되었다. 발표 논문에 대해 성주현(숭실대HK 연구교수), 임형진(경희대 교수)가 토론한 후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극심한 부침(浮沈)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이 2004년 3월 특별법 제정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2019년 2월 국가기념일이 제정으로 정부주최로 기념식이 개최되는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5월 2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국가보훈처 후원,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동학농민전쟁의 민족운동사적 성격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의 심사기준 마련을 논의하고자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일제의 국권침탈과 동학농민전쟁 제2차 봉기-연구동향과 쟁점 검토」(심철기 : 근현대사기념관 교수), 「동학농민운동은 의병운동으로 계승되었는가?」(김현주 : 연세대 교수), 제2부 「동학농민군의 일본 인식과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거」(배향섭 : 성균관대학교),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유바다 : 고려대 교수)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토론에는 조재곤(서강대 교수),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도면희(대전대 교수), 고태우(서울대 교수) 등이 각각 참여하였다.

전봉준 장군 생가 터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 -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서



▣전봉준 장군 생가터 표석



▣전봉준 장군 생가터 전경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당촌마을)에 자리한 '전봉준 생가 터'(지정면적 2,813㎡)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등록된 곳(죽림리 63)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1855~1895) 장군이 태어나 13세까지 살았던 곳이다. 당시에는 서당, 안채, 사랑채 등이 있었으나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모두 소실되었다.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대의원 총회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대의원총회

지난 4월 21일 아산에서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20년 업무추진 경과보고, 2021년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전임 이사장 및 이사 해임의 건, 비상대책위원장 및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2020년 결산 및 감사보고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제3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원진과 대의원을 임명하였다. 임원으로 이사장 주영채, 감사 최정길·이정일, 이사 정해곤(사무총장)·김범중·김창식·문영식·박종호·심재식·이정태·송영례·정탄진·함기영을 각각 임명되었으며, 대의원으로는 강성진(광주), 김수호(인천), 김영웅(대전), 박난수(예산), 송기평(정읍), 송옥희(서울), 송준호(청양), 이길로·이용로(전주), 이의석(홍성), 이원하(공주), 이정렬(장흥), 임영섭(안양), 조영범(태안), 최고원(김제), 최기주(임실), 최이기·황대규(아산), 황동우(고창) 등을 각각 임명되었다.

제14회 녹두대상 선정



■제14회 녹두대상 수상자 | 문영식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가운데)

지난 4월 14일 전북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녹두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회 수상단체로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문영식)를 선정하였다. 수상단체인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문장로의 후손 3대(참여자

문장로의 아들 구석·병석, 손자 원덕, 증손녀 영식)에 걸쳐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고, 그 정신을 선양하기 혼신의 열정을 쏟아왔다. 그 결과 태안군 태안읍 백화산자락에 세워진 동학혁명군 추모탑(1978)이 건립되었으며, 추모탑 건립 이후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매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동학농민군의 영령을 위무하는 추모제를 거행해오고 있다.

제11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 선정



■제11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 수상자 |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지난 4월 28일 전북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선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1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에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을 선정하였다. 수상자는 동학농민혁명사 및 동학사상 등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공로와 일본 홋가 이도대학에 방치되어 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국내 봉환(奉還)

을 위해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전국 기념사업단체 공동으로 구성한 '동학농민혁명군지도자유골봉환위원회(상임대표 한승현, 1995.)의 일원으로 활동한 공로, 한국과 일본 역사교사 및 시민이 함께하는 '동학기행' 기획·운영 공로, 동학농민혁명 주제 연구논문 발표,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 동학농민혁명과 일본 제국』, 『동학농민혁명과 충청남도 - 그 세계사적 의의』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선양에 힘써왔다.

‘사단법인 전봉준’ 창립총회 열려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



■전봉준 장군 제126주기 추모제



■김두관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 순국일인 지난 4월 24일 서울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먼저 오전 11시 종로구 서린동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앞에서 전봉준 장군 순국 추모제가 열렸다. 오후에는 종로구 수운회관 강당에서 (사)전봉준 창립총회가 열려 초대 이사장으로 김두관 국회의원이 추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사)전봉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동

학농민혁명 정신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방송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작품 제작 공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국립묘지 조성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영채 회장, 정남기 고문을 비롯하여 유족회 임원 및 회원,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동학농민혁명 전공연구자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정읍시립국악단 기획공연 소리극 '갑오년 만석씨'



지난 6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전북 전주에 자리한 한국소리문화전당 연지홀에서 소리극 '갑오년 만석씨'가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정읍시에서 주최하고 정읍시립국악단이 주관한 이번 공연작품은 모든 백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했던 동학농민혁명 당시를 살았던 백정 만석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루고 있다. 허구의 인물 백정 만석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작품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민초(무명동학농민군)를 기리는 뜻깊은 문화예술공연작품이다.

공연을 주최한 정읍시 관계자는 프랑스혁명을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로 예술적 형상화를 기해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던 것처럼 '갑오년 만석씨'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어디까지 왔나?



지난 5월 7일 MBC전주방송국은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에 즈음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다.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윤준병 국회의원,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이 출연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경과와 그 의미, 동학농민혁명사 재조명 및 재인식의 필요성, 향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3년,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5월 11일 KBS전주방송총국 시사토론 프로그램 '심층토론(생방송)'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3년, 무엇이 달라졌나? 라는 주제로 제작·방영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윤준병 국회의원이 출연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의 의미와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토론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수병의 증손자 김용선

일 시 2021. 4. 14.(수) 11시
장 소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실

Q 이번 호 『녹두꽃』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김수병(金琇炳 1866~1894) 님의 증손자 김용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고결한 정신을 바탕으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기념재단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물론이고,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념사업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인쇄물과 전자책으로 제작되어 많은 분들에게 배포되는 소식지『녹두꽃』 지면을 통해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Q 네, 회장님께서서는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이밖에도 사단법인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전국의 참여자 유족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회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증조부님께서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부끄러운 후손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단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과 전국 유족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제4기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Q 네, 회장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 수자 병자 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증조부님이신 수자 병자 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 언제 알게 되셨는지요?

A 백부님(故김재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세 살 때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니까 60년대 후반인데, 그때 저희 백부님이 지역에서는 꽤나 이름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고창에서 김재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백부님은 아주 엄하신 분이셨는데 저는 제 아버님보다는 백부님께 더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들끼리 왕래가 잦아서 저는 큰집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모이면 백부님께서는 “우리 집에는 족보가 없다. 이 점이 가슴 아프다”라고 자주 말씀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족보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백부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지요. 그런 제게 백부님께서는 족보란 우리 조상님들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내력을 적은 책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역적의 후손으로 낙인찍혀 숨어 다니느라 족보가 없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백부님을 통해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Q 백부님께서 60년대 후반 회장님께 증조부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을 말씀해주셨다는 것인 일 정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던 갑오년의 역사가 1963년 10월 3일 정읍 황토현 정상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지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이 조금씩 변화하 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68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에서 사발통문이 발견되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이듬해인 1969년 4월 그 마을 앞에 '동학혁명모의탑'이 세 워지거든요. 이런 사회적 변화로 백부님께서 당신의 조부님이신 김자 수자 병자 어른의 동학농민 혁명 참여사실을 회장님께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1994년을 전후하여 동학농민 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그 노력의 결실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2004년 9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설치되어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하고 등록하게 되었지요. 증조부님의 참여자 등록 관 련 업무는 어느 분이 맡아보셨는지요?

A 증조부님을 참여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고, 그에 따른 유족등록을 위한 일들은 제 아버님이신 고 김 재자 수자님께서 맡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993년 유족회가 창립을 준비하던 때부터 적극적으로 유족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어 참여자와 유족등록 업무를 추진 할 때 제 아버지께서 김 수자 병자 당신의 조부님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참여자 등록을 신청하 시고, 아버님을 포함해 손자녀 5명을 유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듬해 가을, 그러니 까 2005년 9월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저를 포함하여 총 14명의 증손자 녀가 유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 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유족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9명인데 저희 큰 집과 저희 집 가족들만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직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이 대략 50여 명쯤 되는데,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서 차차 등록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인터뷰를 하러 오기 위해 증조부님 관련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증조부님께서 김해김씨(金海金氏)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내리에 태어나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고창지역 농민들을 규합하여 혁명에 가담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당시 청년부대와 천민부대의 기포장으로 활약했다는 점도 볼 수 있었는데, 증조부님에 대해 전해들은 얘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백부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증조부님께서 기골이 장대하여 힘이 장사였고, 의지가 굳어 오달진 성품이 넘쳐 주변의 젊은이들 속에서 늘 우두머리로 활동하셨다고 얘기해주셨어요. 고창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는데 청년부대와 천민부대를 규합하여 기포장으로 활약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고창이라는 동네가 좁아서 고창사람들은 저의 증조부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고창문화원장을 지내신 이기화 선생님도 저에게 제 증조부님에 대한 얘기를 백부님과 비슷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Q

증조부께서는 청년부대 기포장으로 활동하시다가 우금티 전투 때 패배한 이후 도피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고창 숲정이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동학농민혁명군 사형터'라는 표석이 있어요. 증조부님께서 무장기포 때부터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가 우금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고향으로 숨어들어 피신하셨고, 숨어 있다가 관군의 밀고로 잡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창 숲정이 거리에서 처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나 일본놈들 정말 무지막지한 놈들이예요. 저의 증조부님께서 '관솔형'이라는 형을 받고 돌아가셨답니다.

고창지역의 역사문화 이야기 (27)

고창현 동학농민군 김수병 청년부대장의 명언(名言)

(金秀炳)

이기화(고창지역학연구소장)

그의 자는 수병(秀炳), 호는 운재(雲在). 본명은 운수(雲壽). 김해김씨 삼현파(三賢派)로 아버지 봉환(鳳煥)의 아들이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여 힘이 장사였고, 의지가 굳고 오달진 성품이 있어, 고창 동부시장 주변을 주름잡고 있어, 서당을 못 다닌 젊은 패거리의 우리머리였다.

1890년 대 초 갑 자 기 서 울 에서 낙향하게 되어, 화산 유기침을 운영하고 있던 홍종운(洪鍾雲, 1844~1925)의 사당에서 기숙하면서, 장남마다 고창부터 삼거리 목에서 시국연설로 인기를 독차지하게 된



홍낙관(洪樂寬)이, 고창 서부리 당골어미(당시 김씨 당골)의 기뻐서방이 되면서, 갑오년 농민봉기 때 당골·머

슴(鹿耳) 패거리(천민부대)로 주름잡을 때, 그 부하들을 이끌고 선봉대장으로 청년부대의 정두노릇을 맡게 되어, 농민군 가담자를 9천명으로 늘려낸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낸 실력자·군장(軍長-기포장)의 기명을 토해냈는데, 고창고를 토반출신 강성지(姜成之) 수성(守城)부대장의 급습을 받아, 1894년 12월6일 새벽에 29살의 왕성한 나이에 숲정이 거리로 불려가, 관솔불로 골을 뿔겨죽이는 처참한 사형방법으로 혐악하게 처형

당하는 실증담이 나돌고 있어, 지금도 고로충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 당시 숨쉴이 헛차에서 김 군장에게 최후의 진술을 묻는 강성지 수성장에 남긴 우문현답(愚問賢答)은 1세가 훨씬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고창읍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통쾌감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더 이상 할말이 없느냐"는 물음을 아니꼽게 흘려본 김 군장은 "개뿔도 두돈 오피도 못 밟아본 놈이 예비대에 놀아지는 놈이 무슨 놈의 집포대가 이리 많아, 어서 바닥내라 이놈!"이었다.

《두돈 오피의 해설》

1894년의 갑오경장 때부터 을사늑약이 체결된 전후까지 한 푼도 없는 사람을 빈정대는 말투가 '두돈 오피도

없는 놈'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1678년(숙종 4년)부터 통용된 상평통보(常平通寶)가 고종(高宗) 말기까지 사용되다가, 1894년 갑오경장 때 신정화폐를 정정(章程)하여 5량·1량(銀錢)제로 기준하여, 그 이하 단위로는 두돈오피(2錢5分·白銅), 오피(5分·赤銅), 일푼(1分·黃銅) 등으로 은화(銀貨)를 본위(本位) 화폐로 규정하여, 문란해진 화폐제도를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1905년의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금본위(金本位) 화폐제도를 따르기로 강압조치됨에, 조선국의 화하위 화폐가치를 일본돈 1전과 조선의 두돈 오피으로 규정시킴에, 갑오경장 이후 사실상 일본정척에 놀린 현상으로 인정된 것임.



Q ‘관솔형’이라고요? 화형이나 참형, 교형 등은 들어봤는데, 저는 관솔형이라는 형벌을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형을 말하는 것인가요?

A 네, 정말 무지막지해서 얼른 입에 담기조차 꺼려집니다. 관솔이라고 있잖아요? 소나무 진액이 엉겨 붙은 웅이 박힌 나무끝덩이, 그걸 전라도에서 관솔이라고 하잖아요? 송진이 엉겨 붙은 거라서 불에 잘 붙고, 불이 한 번 붙으면 오래오래 타들어가는 것이 관솔 아닙니까? 그 관솔을 사람의 머리 중심부 숨구멍에 박은 후 그 관솔에 불을 붙이면 계속 타들어가다가 나중에 팡~~ 하고 골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형이 관솔형이랍니다. 세상에나,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치가 떨리고, 울컥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형벌로도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왜놈들은 천인공로 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놓고도 반성은커녕 지금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독도가 지네 땅이네 뭐네 지껄이고 있잖아요?

Q 아, 네.... 말을 이어가기가 좀.... 회장님, 증조부님은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요?

A 네, 증조부님은 고창군 고창읍 남쪽에 위치한 노동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축소·왜곡되었고, 그 후손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지요? 선생님 집안도 힘든 세월을 보내셨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A 지금도 일부 보수 우익세력들은 ‘동학농민혁명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역모이자 반란이다.’라고 매도하는 경향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1차 기포지인 무장포고문의 어느 한 구절, 단 한 글자도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도리어 포고문에는 임금을 칭송하고 백성의 안위와 나라를 걱정하는 보국안민의 정신이 표방되어 있어요. 아주 명문으로 작성된 무장포고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그 뜻을 헤아린다면 감히 동학농민혁명을 반란이네 뭐네 지껄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동학농민군이 말도 못하게 탄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조부님은 증조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태어났어요. 말하자면 조부님은 유복자입니다. 증조부님이 처형을 당하신 후에 조부님이 태어나셨는데, 관에서 사람이 나오면 증조모님께서는 어린 조부님을 치마 밑에 감추곤 했답니다. 당연히 학교도 못 다니셨죠. 하지만 조부님께서는 참 영리한 분이셨다고 백부님께 들었습니다. 조부님께서는 증조부님을 아주 많이 닮으셨다고 합니다. 조부님 성품도 아주 강직하셨는데, 겉모습만이 아니라 성품도 꼭 증조부님을 닮으셨다고 증조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부님께서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여간 유복자로 태어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 조부님은 후세에 대한 욕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부님 자손이 5남 3여, 8남매예요.(웃음)

Q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110년만인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25년만인 2019년 2월에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제정되어 매년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1일에는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경복궁 흥례문 마당에서 개최됩니다. 참여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감회가 새롭지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던 때와 특별법이 제정되던 무렵까지 제 아버지께서 유족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가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해주고, 매년 기념식을 거행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도 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해 말부터 국회나 국가보훈처 등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제 국권침탈에 맞선 반일의병으로 인식하고,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 5월 6일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5월 20일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증조부님을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분들의 숭고한 구국애민의 정신이 너무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으로,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Q 고창군과 사단법인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매년 1월 전봉준 장군 탄신 기념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께서 1855년 을묘년 12월 3일 출생하셨는데, 양력으로 치면 1856년 1월 10일경이어서 거기에 맞춰 탄신제를 모시고 있지요?

A 네, 전봉준 장군 탄생지는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 63번지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전봉준 장군이 전주에서 태어나셨다, 태인 동곡리에서 태어나셨다, 정읍 이평면 조소리에서 태어나셨다, 고부에서 태어나셨다 등등 주장이 많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 전봉준 장군이 반란군 우두머리로 매도되던 때는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가 자기 고향 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전봉준 장군에 대한 탄생지가 논란이 되어 오다가 1996년인가? 그 어간에 열린 학술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족보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자타가 인정했던 고 진기홍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기화 당시 고창문화원장님 등이 전봉준 장군 태생지가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63번지라는 사실을 천안전씨 족보를 비롯하여 제반 사료들을 근거로 논증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 역사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전봉준 장군이 고창 당촌 태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얼마 전에는 전봉준 장군 생가 터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46호로 등록되기까지 했습니다.

Q 네, 저도 전봉준 장군 생가 터가 전라북도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매년 빠짐없이 전봉준 장군 탄신제에 참석하였는데, 그때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전봉준 장군께서 1894년 12월 2일 순창 피노리로 관군에게 붙잡히셨는데 그 다음 날이 전봉준 탄신일이거든요. 전봉준 장군 출생일이 1955년 12월 3일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께서는 생일 전날 관군에게 붙잡히신 겁니다. 이후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 영사관 순사청에 유치된 상태에서 의금부 권설재판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았고, 이듬해 음력 1895년 3월 30일, 양력으로 4월 24일 의금부 건너편 전옥서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셨습니까? 순국하신 4월 24일은 한 해 전인 1894년 4월 25일 동학농민군 무장기포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가슴 아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1월 10일 탄신제와 4월 25일 무장기포 기념 때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A 아 네.... 그렇군요. 문부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로 그렇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가슴을 멍하게 만드는 것이 있네요.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동안 수많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나 기념사업 관계자, 참여자 유족들을 만났지만 문부장님이 방금 하신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정말 맥락을 놓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전봉준 장군께서 체포된 날이 생신 전날이고, 순국하신 날이 이듬해지만 무장기포 전날이라.... 가슴이 아프네요.

Q 네, 회장님.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고창군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고창군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건립기금을 모금하고 있지요? 전봉준 장군 탄신 166주년이 되는 2022년 1월 10일을 기해 제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전봉준 장군 고향인 고창에 그분 동상이 없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근현대사의 암울한 상황 때문에 그분 고향이 고창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 늦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녹두 전봉준 장군 고향 고창에 동상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고창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멋쩍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고석원 전 전라북도의회회장을 위원장으로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상 건립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사업비를 고창군비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전라 천년'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군이 파랑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사업을 이 공원사업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이에 따라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와 논의도 없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사업비가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2020년으로 들어서서 다시 전봉준 장군 동상을 고창군에 건립하자는 논의가 재개되어 지금 고창군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립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다시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해나가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함께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전공연구자는 물론이

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향각지의 뜻 있는 분들과 고창군민의 성금으로 세워질 이번 동상 건립사업은 전봉준 장군과 여러 장군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무명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참 동학농민군상 건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네, 회장님 여러모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으로, 회장님의 증조부님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수많은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지요?

A 동학농민혁명의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봉준 장군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름 없이 순국하신 무명 동학농민군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때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기념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최초 민주주의운동이고, 우리나라 근대 최초 민족주의운동이고, 우리나라 근대 최초 반부패개혁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 인식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공영방송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감동적인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역사적 위상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때 꼭 대통령께서 참석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에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Q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주동학농민혁명제승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 2021. 6. 2(수) 13시

장 소 상주동학농민혁명제승사업회 사무실



Q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지역대담〉에 경상북도 상주시에 사무실을 두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상주동학농민혁명제승사업회 김봉기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회장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동학농민혁명제승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봉기입니다. 저는 상주에서 1993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몸을 담은 후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지역에서 미술 판화가로 활동하면서 민주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4기 이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Q 네, 회장님께서 처음 1993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에 몸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고인(故人) 강효일 선생님 등과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해오셨지요? 경상도 지역 그 중에서도 이른바 ‘TK지역’이라 일컬어지는 곳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이 전라도와는 사뭇 달라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강효일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어쨌거나 불굴의 의지로(웃음) 1993년부터 강효일 선생님과 회장님 같은 뜻있는 분들이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줄곧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펼쳐온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관련한 사업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갑오년 농민들의 의로운 외침, 만민이 평등하고, 외세의 침략에 결연히 맞섰던 그분들의 구국애민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1994년 4월 2일 상주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 창립식을 겸한 초청강연을 가졌습니다. 그때 강사가 고(故) 이이화 선생님과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던 신영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문병학 부장님이 이이화 선생님을 모시고 행사에 참석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Q 맞아요. 그랬었지요. 1994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전주시청 광장에서 열렸던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주에 있던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날이 바로 상주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 창립식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사업회 이사직을 맡고 계셨던 이이화 선생님





께서 전주에 오셔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이화 선생님과 제가 상주로 내려갔습니다. 어쨌거나 역사특강과 함께 창립식 가진 후 상주계승사업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지요?

A

네, 1994년 6월 13일 ‘궁궁을을’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공연을 상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가졌고,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상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녹두꽃 떨어진 그 이후’라는 주제 아래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미술 기념전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21일에는 상주 동학농민군을 처형한 장소인 상주관아 앞 옛 태평루 자리와 상주시내 일원에서 명정과 만장등을 앞세운 풍물패가 거리행진을 한 다음에 노제 형식으로 동학농민군의 영령을 위무하는 위령제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위령제가 의미를 더했던 것은 동학농민군의 원혼을 위무하고자 선거리 무당패가 진혼굿 한마당을 펼칠 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00주년 이전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반란사건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100주년 이전에는 유족이라고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10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에서 펼쳐진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에 힘입어 우리 상주에서 위령제가 열리니까 비로소 유족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위령제에 함께 참여한 유족들이 소리 없이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멍해집니다.

Q

맞습니다. 저도 태평루에서 올린 위령제 때도 참석했습니다. 위령제가 끝나고 점심식사를 할 때 참가했던 유족 몇 분들의 얘기에 분위기가 숙연해졌었지요. 100

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이듬 해였던가 1996년도였던가? '상주동학농민혁명군상'을 건립하셨지요? 1995년인가 1996년인가? 많이 추웠었는데, 제가 그 농민군상 제막식에도 참석했었거든요. 상주천변에 기념동상을 세우기까지 참 많은 사연이 많았지요?

A

1994년 11월부터 상주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상주 동학농민혁명군상'을 제작·건립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래 이 기념동상은 상주 동학농민군의 훈련장이자 나중에 동학농민군을 처형했던 처형한 장소였던 남사정 터, 현재 경상북도 도립도서관이 들어서 있는 곳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추진하였는데 동학농민혁명군상 여기에 '혁명'이라는 글자 때문에 세우는 것을 승인할 수 없다고 당시 상주도서관장 등이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석무 의원의 협력을 받아 1995년 7월 13일 '상주동학농민혁명군상 건립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이 제17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위원회(1995.12.13.)에 상정되었고, 그 결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등 그 결과를 통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념상을 세울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1996년 4월에 상주시 가장동 상주대학교 앞 소천교 공원에 기념상을 건립하라는 상주시 허가가 나서 1996년 7월 1일 혁명이라는 단어를 빼고 '상주동학농민군상'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1일 완공, 그 이튿날인 11월 2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기념상 건립에는 상주시청을 비롯하여 상주시의회, 상주산업대학교, 농협중앙회 상주지부 등 35개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였고, 전국 기념사업단체 임원과 회원은 물론이고 상주시 서일목 씨 외 121명이 성금을 내는 등 힘을 정성을 모았었습니다.

Q

이후에 상주 동학농민군상이 훼손이 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등 사연이 많았지요? 그 결과 '상주 동학농민군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A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의 의로운 외침과 갑오선열의 실천을 본받아 이어가고자 상주 동학농민군상을 조성하였으나 2008년 7월에 상주 김천 간도로공사 때 기념상이 일부 훼손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기념상은 철거하기로 하고, 그 대신 우리 사업회에서 요청한대로 상주시가 빗돌과 건립 장소를 마련하여 현재 천봉산 밑 임란북천전적지 앞 북천공원에 기념상건립의 정신을 담아 새롭게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념비가 웅장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민족사적 의의를 일깨우기 위해 상주시민들의 정성이 모아졌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 상주 시민의 자존심이자 상주의 미래를 열어갈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늘 그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기념비 제막식 때 재

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던 이이화 선생님과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던 문부장님도 함께 참석하여 격려해주셔서 힘이 되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Q

기념비를 건립한 이후에 이곳에서 매년 위령제를 지내왔지요? 추모제에 참석할 때마다 추워서 갑오선열께서 후손들에게 뭐하느냐고 나무람 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A

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비 앞에서 매년 음력 10월 22일을 기해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그날이 바로 1894년 동학농민군이 상주읍성을 함락한 날이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상주읍성 안 왕산 역사공원에서 위령제 및 동학농민혁명 문화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도 제127주년 상주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와 제8회 동학농민혁명 문화제를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116주년 동학농민혁명 전국 기념대회를 상주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최한 기념대회를 상주에서 개최한 것은 정말 고맙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반란사건으로, 전라도에 국한된 지역적 민란 등으로 왜곡되고 축소되어왔는데, 일제에 의한 이런 역사왜곡과 축소는 이미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극복되었잖아요? 그래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고, 2019년에는 국가기념일까지 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제주4·3항쟁이나 5·18민주화운동과는 달리 전라도 지역을 벗어나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기념식을 펼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인 면모와 그 위상을 되살리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되던 2004년 가을에 창립된 재단 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때부터 기념일 행사를 서울을 비롯하여 충남 공주시·태안군, 전남 장흥군, 강원도 홍천군 등지를 순회하면서 기념대회를 펼쳤고, 문체부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출범한 후 충북 보은군과 경북 상주시 등지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 2019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크게 승리한 황토현전승일로 제정되었는데, 이후 서울 광화문광장, 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지, 그리고 올해는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개최를 활용하여 일제가 애써 왜곡·축소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인 위상과 그 면모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과는 달리 우리 상주지역의 지역 정서 등으로 기념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이점에 대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지역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상주지역에서도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금까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염려와 함께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색깔론까지 들어 상주경찰서 정보과에서 기념사업을 하는 사람들 뒷조사까지 하는 일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상주지역은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림의 활동이 많은 곳이어서 동학농민혁명을 아직도 ‘동학란’이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갑오년 당시 유림이나 민보군 편이었던 사람들의 후

손과 동학농민군 편이었던 사람들의 후손들 사이 간극이 지금도 표면으로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 점들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Q 네, 상주지역에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많지요? 또 100주년 기념사업 이후에 건립한 기념시설물들도 있을 텐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상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상주시내 전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시내권역과 중화 6개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내권역 유적지로는 상주읍성 태평루 향청 아리랑고개, 남사정, 북장대, 기념비 등이 있고, 낙동강 언저리에는 일본군 낙동병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유적으로 도남서원과 우산서원 등이 있고, 효곡리 윗 왕실마을과 소리마을, 공성법소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모동, 모서, 화남, 화북, 화서지역에 앞재마을, 동관리 절곡부락, 강선보 머리무덤, 모동 중모장터와 반계리 주막터, 광주원터, 화령 장터 등지에 관련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함창, 이안, 공검 지역에도 있고, 외서 지역에는 동학교당과 관남지, 태봉병참부 등이 있습니다.

Q 상주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갑오년(1894)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근대사에 민족운동의 효시입니다. 반봉건 반외세의 깃발아래 이 땅의 자주와 민권을 수호하려는 의분의 봉화가 전국에서 솟아 오를 때 상주지역에서도 혁명의 횃불이 높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1894년 여름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점령한 후 청일전쟁을 벌이기 위해 부산에서 낙동강을 따라 상주, 김천, 구미, 석문, 문경 등을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병참부를 설치하고 전선을 가설하는 등 침략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상주 동학농민군은 병참부 관련 일본군 정찰대를 공격하는 등 반일의병의 기치를 적극적으로 들어올리고 활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봉건 지배세력의 탄압과 일제의 무력침략으로 그 숭고한 뜻이 좌절되었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지역에 국한된 반봉건 민주항쟁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우리 경북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불을 당긴 동학농민군의 반일의병의 기치와 그 정신을 더는 미루지 말고 되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전국적인 위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데 힘을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Q

상주지역에서 계승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주시 은척면의 동학교당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상주시 은척면 우기 1길 64에 있는 동학교당은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척면 동학교당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 공주 출신인 김주희(1860~1994)가 1904년에 상주에 와서 경천교를 세우고 이곳을 포교의 근거지로 삼으면서 1915년 지금의 자리에 교당을 건축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곳 은척교당에서 경천교는 1943년까지 포교활동을 펼치면서 교세를 확장하는데 힘을 썼는데, 그 경천교 본부였던 곳이 바로 은척면 동학교당입니다. 그러니까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조사도 없이 마치 상주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점은 경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은척면 동학교당에는 현재 교기·전적·가사·판목·인장 및 생활용품 등 유물 1084점이 보관·전시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유물들은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척면 동학교당에 있는 유물들은 종교사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그런 쪽으로 보존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혁명이 끝난 이후 동학이 종교로서 분파로 파생되던 때 일인 은척면 동학교당의 역사적 의미는 엄연히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회장님.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임원진과 회원 구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회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현재 80여 명이 상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공부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정신 선양은 물론이고, 갑오년 선열들께서 지향했던 인간 존중, 반부패 등의 정신을 잘 받아들여 정의롭고 민주적인 상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관 및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Q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꼭 110년만인 지난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5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꼭 125년 만인 지난 2019년 2월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이제는 달력에도 5월 11일 칸에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라고 새겨져 나옵니다.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장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해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33살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상주계승사업회 사무차장, 사무국장 등을 거쳐 현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깐 햇수로 28년이나 되었네요.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란으로 일컬어지던 갑오년의 역사를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바로세우고, 그런 노력의 결실로 2004년 특별법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정명(正名)을 찾았고,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일에 저도 작으나마 기여하였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란에서 혁명으로 대중적인 역사인식 전환은 가져왔지만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왜곡되고 축소되어 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은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주계승사업회는 앞으로 일본군병참부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군의 반일의병의 정신을 복원하는데 보다 힘을 집중시켜나갈 생각입니다.

Q

상주지역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필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느끼고 계시는지 하는 점과 앞으로 상주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에서 추진해나갈 사업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문성 있는 학술적인 토론과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현재화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재인식을 기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학술토론이나 역사강의 등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 정비를 통해, 기초적인 작업으로 우선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상주시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지역 상주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일어난, 반봉건 항쟁과 반일의병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Q

더 하시고 싶은 얘거나 빠뜨린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전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가 3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다들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들에 개해 사업비를 비롯한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

네, 회장님 긴 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녹두꽃, 다시 피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 전시실과 녹두학당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나이가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녹두학당'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 입체퍼즐 만들기, 녹두씨앗 심기, 유적지 답사, 팝업북 만들기, 녹두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 정읍 내장초등학교 3·4학년(2021.04.15.)



전북 부안 행안초등학교 4학년(2021.04.30.)



전북 정읍 보성초등학교 3·4학년(2021.05.07.)



전북 정읍 덕천초등학교 5·6학년(2021.05.11.)



전북 부안 동진초등학교 4학년(2021.05.14.)



전북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2학년(2021.05.27.)



전북 정읍 태인초등학교 5·6학년(2021.05.28.)



전북 전주 아중초등학교 5학년(2021.06.04.)



제54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추모제례



■제11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 | 수상자 박맹수 원광대 총장

지난 5월 8일 정읍 황토현전적지 구민사(求民祠) 등에서 정읍시(시장 유진섭)주최,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 주관으로 '동학, 새로운 비상'이라는 주제로 제54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열렸다.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대외마을) 앞에서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를 모시고, 황토현전적지 구민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모제례를 거행하였고, 제세문과 보국문 사이 마당에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기념식을 펼쳤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11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 제3회 UCC공모대상, 제1회 전국 황토현 시(詩)문학상 수상작 등에 대한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거행



지난 5월 11일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안경엽)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기해 남원 교룡산 동학공원에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국민의례, 묵념, 무장포고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동학농민혁명 판소리, 용담검문 공연 순으로 엄숙하면서도 성대하게 진행된 기념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하여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 손중열·양해석·이미선·박문화 남원시의회 의원, 김주완 남원문화원장 등 많은 일반시민들이 참석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구국애민정신과 차원 높은 인간존엄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였다.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천안기념사업회 창립총회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및 천안기념사업회 창립총회

지난 5월 11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평화공원에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함께 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기념식에는 이우성 충남부지사,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 박기평 천안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 비롯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창립총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초대 임원진을 선임하고, 단체의 규약과 사업계획 등을 논의·결정하였다. 선임된 임원은 회장 강대석, 부회장 김남하·박기평·박현희, 사무국장 김경주, 감사 심우근·황덕현, 자문위원 김양식·김종식·장성균 등이다. 이밖에도 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출범에 따른 특별사업으로 천안시에 '동학농민혁명기념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채택하고, 건립추진위원장으로 이웅길 회원이 선임하였다.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우금티 기념식 거행



■기념식



■시비(詩碑)| 다시 살아가는 우금티

지난 5월 11일 우금티 전적지에서 공주시 후원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신경미) 주최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이례, 묵념, 기념사, 기념공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 동학농민혁명의 노래 제창, 헌화 등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 후에는 동학혁명군위령탑 앞 시비(詩碑, 다시 살아가는 우금티)를 제막하였는데, 김정섭 공주시장,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박기영 공주시의회 부의장, 진영일 우금티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과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임원, 정·관계 인사, 천도교와 원불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였다

• 충북 청주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시민강좌 콘서트



지난 5월 11일 충북 청주시에서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 김양식) 주최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및 시민강좌 콘서트가 열렸다. 기념식은 개회사, 기념사와 함께 충북지역 정신선양사업의 당위와 필요성 등을 담고 있는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선언문 낭독, 고은광순(한인사, 작가)의 시민강좌 등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기념식을 개최한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오는 10월 깃발 퍼레이드와 석장승세우기 등과 함께 '제2회 동학깃발문화제'를 성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전남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제127주년 무안 고막포 전투 기념제



■경과보고 | 박석면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고막포전투 재연| 극단 갯돌

지난 5월 26일 전남 함평군 석교면에서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면),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배종렬) 공동주최로 제127주년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열렸다. 풍물패 식전공연과 역사 강연에 이어 진행된 기념식은 추모사, 분향 및 헌화, 고막포 전투 재연(극단 갯돌과 무안고등학교 학생 30여 명)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종렬(무안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희필(무안군 부군수), 배항섭(성군관대 교수), 정상철(무안군 농민회장), 오해균(무안군문화원장), 고송주(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장), 백용수(무안향교 전교), 김란(무안교육청 교 육장), 이영우(나주시청 총무과), 이계표(나주학회 부회장), 함평문화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하여 무안고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제127주년 장성 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



■공로상 수여|좌 이상식 교수, 우 김영록 전남도지사



■표창장 수여|좌 조복래 회장, 우 유두석 장성 군수

지난 5월 27일 장성 황룡승전기념공원에서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조복래)와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대표 이상식) 두 단체 공동주최로 제127주년 황룡 동학농민혁명 승전기념식이 열렸다. 식전 문화공연이 끝난 후 진행된 기념식은 국민의례, 경과보고,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기념사, 축사,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황룡전투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1995년 황룡전적지에 승전기념탑 등을 건립하였고, 1998년 6월 장성 황룡전적지가 국가사적(제406호)으로 등재되는데 크게 기여한 이상식 교수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조복래 회장에도 장성군수의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그동안 장성군비로 추진해온 장성 황룡 동학농민혁명 승전기념식과 장흥군 석대들 전투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올해부터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하여 도단위 사업으로 격상시켜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2021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 - 5.11 기억하기·동학농민혁명 시민참여 행사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민)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11일까지 '5. 11. 기억하기 - 동학농민혁명 시민참여 행사'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행사를 지양하여 행사의 외적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사진전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직접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그린 그림전시회, 학생들이 제작한 동학농민혁명 주제영상 상영, 판화찍기체험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3월 22일	남도일보	김익주 시의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근거 마련"
3월 23일	강원일보	[홍천]"홍천 서석면에 동학기념관 건립 필요"
3월 25일	오마이뉴스	독립유공 서훈서 차별받는 2차 동학농민 참여자들
3월 27일	브레이크뉴스	조동걸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 성격 있어"
4월 01일	투데이안	[고창군]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열려
4월 05일	투데이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병학 부장 "고창군의 동학성지화 사업 의미 커"
4월 07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주제로 '태권유랑단, 녹두'브랜드 공연 공동으로 만든다
4월 09일	뉴스핍	고창 전봉준 생가터 전북도 기념물 지정
4월 11일	한국경제	민족사의 유일무이한 혁명, 동학농민혁명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재발견]
4월 14일	NEWS1	정읍 이달의 인물 '동학지도자 김개남, 증산교 창시자 강일순' 선정
4월 19일	위키트리	고창군 '제14회 녹두대상', 동학농민혁명 태안군 유족회 선정
4월 19일	전북도민일보	정읍시, 황토현 전적 內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본격화'
4월 20일	뉴시스	정읍시, 제1회 전국 황토현 시문학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4월 21일	새전북신문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챌린지 동참 잇따라
4월 25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군의 얼굴'그림 공모전'개최
4월 25일	노컷뉴스	동학농민혁명운동가 전봉준 장군 기리기 위한 사단법인 창립
4월 26일	뉴시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제127주년 기념행사 염수
4월 28일	브레이크뉴스	"동학농민혁명 총사령관 전봉준 장군, 직계 후손이 있다"
4월 28일	뉴시스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5월1일 개최...백산성서 묵념·헌화 등
4월 29일	경향신문	제11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박맹수 원광대 총장 영예
4월 30일	위키트리	정읍시, 제3회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수상작 선정
5월 03일	경향신문	[기고]모두가 존엄한 사회, 동학농민혁명에 길을 묻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5월 03일	국제뉴스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국회 학술토론회 개최
5월 03일	아시아투데이	정읍시, '제54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개최
5월 03일	전북도민일보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행사 개최
5월 04일	연합뉴스	정읍시, 5월 역사 인물에 손화중·박만환 선생 선정
5월 05일	새전북신문	[특별기고]동학농민혁명 시대정신 살아 있다
5월 06일	파이낸셜뉴스	동학혁명에 양반층도 참여 '동학농민군 편지'문화재 된다
5월 09일	전북도민일보	제54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성황
5월 10일	이데일리	내일 경북궁 흥례문 광장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5월 11일	연합뉴스	"127년 전 하늘을 품은 함성"...경북궁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5월 11일	동양일보	공주 우금티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5월 12일	KBS NEWS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3년, 무엇이 달라졌나?
5월 13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삼례 역참터 '국가 사적'지정해야
5월 13일	전북일보	농민군의 독립유공 서훈
5월 13일	대전일보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창립
5월 19일	아시아투데이	성일종 국회의원,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5월 23일	동양일보	동양칼럼/ 다시 되돌아보는 동학농민혁명
5월 24일	NEWS1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 묘', 경기도 문화재 지정
5월 24일	노컷뉴스	"오라,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갑오년 만석씨'
5월 27일	NEWS1	장성 동학농민혁명 승전기념식
5월 28일	프레시안	[포토] 장흥 동학 농민혁명 희생자 진혼제
6월 1일	무안뉴스	무안·함평 동학군 5~6만명 마지막 전투격전지 '고막포전투'
6월 1일	노컷뉴스	전주시, 전라감영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 안내

①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포함)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②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8-2897)으로 문의하거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 학 농 민 혁 명 기 념 재 단